

모유수유 결정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신 희 선*·전 미 양**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유수유는 아동 건강을 위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 및 지지를 위해 1979년에 WHO, UNICEF 공동으로 “영유아 영양 개선에 관한 선언문”의 채택을 비롯하여 1989년에는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 10단계”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모유수유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Martinez & Nalezien-ski, 1979),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 경험률(기간과 무관하게 모유수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은 93.9%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83.3%로 저하되고 1990년대에는 72.5%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 생후 1개월간 모유수유 실천율(혼합 수유 포함)이 1970년 73.7%에서 1990년 86.9%까지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박과 황, 1994). 한편 모유수유를 시도하였다 해도 쉽게 중단하는 경향을 보여 1993년 출생한 보건소 내소 영유아 10,830명의 분석자료를 통해보면 혼합수유 포함시 모유수유 실천율은 신생아기에 72.5%에서 6개월째는 45.1%로 떨어져 단기간 수유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박과 황, 1994).

모유수유율 저하에는 여러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 부족, 취업 증가등 현실적 장애등이 지적되고 있다(김, 1992 ; 정등, 1993). 한편,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결정과 실제 수행은 높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Beske & Garvis, 1982 ; Gulick, 1982), 이러한 결정에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모유수유 실천 증진과 관련하여 요청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모유수유 결정 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수유선택에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여 변화 가능한 요인을 찾아내고, 모유수유 선택 및 지속기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및 지식정도를 조사한다.
- 2) 모유수유 결정에 관련한 예측요인을 탐색한다.
- 3) 모유수유 선택에 관련한 저해요인을 조사한다.

2. 용어정의

모유수유 결정 : 분만후 퇴원시 산모가 수유방법 선택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임상조교

에서 모유수유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경우를 의미한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 산모가 가지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과 행위수행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태도 질문지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II. 문헌 고찰

1.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의 성분과 우유성분의 차이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과거에 비해 영아의 영양적, 생리적 요구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측면의 발달로 좀 더 나은 인공 영양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모유는 영아의 성장 및 건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영양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산후 5일간 분비되는 초유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등을 더 많이 함유할 뿐 아니라 항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게 해준다(김, 1993).

면역학적 측면에서 볼 때, 모유에 함유된 Secretary IgA는 장내세균이나 항원의 침입으로부터 장관의 점막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AP, 1978).

모유는 철결합 단백질 Lactoferrin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내에서 E.coli에 대해 저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유에는 정상적으로 백혈구를 함유하고 있으며 Macrophage가 세포의 9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complement, lysozyme, 그리고 lactoferrin을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면역적 요소로 interferon, Lactobacillus bifidus의 성장을 증가시키는 Bifidus factor를 함유하고 있다. 그외에도 모유는 장관의 외부 항원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알리지 질환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AP, 1978 ; Marlow & Redding, 1988). 또한 모유수유가 영아의 호흡기 및 위장계 질환 이환율 감소와 관련됨이 보고된 바 있다(Chandra, 1979 ; Cunningham, 1979).

그외에도 모유수유는 모아애착 형성을 촉진 시킬 뿐 아니라 모유수유를 통해 산후회복 촉진과 피임 효과등 산모의 건강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있다(김, 1993 ; William & Jellife, 1972).

2. 모유수유 결정 관련 요인

수유방법에 대한 결정은 대개 임신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요인이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ske and Garvis(1982)는 수유 방법 결정 및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산모의 82% 이상이 임신 6개월내에 모유수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만후 일찍 모유수유를 시도한 경우 더 오랜기간 모유수유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유수유 결정에서 주요 지지원이 남편으로 나타나 임부와 함께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Gulick (1982)는 초산모가 모유수유를 1개월내 중단한 경우와 1개월이상 지속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을 수록 모유수유에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제공이 모유수유 실천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Rentschler (1991)는 150명의 모유수유를 결정한 초산모에서 모유수유에서의 성공(6주이상의 모유수유 지속)은 산모의 성취동기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수준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모유수유를 결정한 산모의 71%에서 성공적 모유수유를 시행하여 높은 실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Macaulay, Hansusaik, and Beauvais (1989)는 모호크족에서의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산모의 연령과 이전의 모유수유 경험이 모유수유 선택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전정보, 아기의 성별, 산모 자신이 모유로 키웠는지 여부는 모유수유 결정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수유 방법 결정은 68%에서 임신전에 이루어졌다고 했으며 모유수유 지속기간은 임신전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길었다고하여 임신전부터 모유의 장점과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 77명의 산모중 64%에서 모유수유를 결정하였으나 모유수유율은 3개월에 39%, 6개월에 24%로 저하되었으며, 3개월 이내 중단의 주요요인으로는 모유부족(39%), 유두손상(16%), 피곤 또는 우울(16%)로 나타났다. Kearney, Cronenwett, and Barrett(1990)는 128명의 산모에서 모유수유로 인한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을때, 병원에서의 인공수유, 첫수유시의 불만족감이 수유 1주내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보고된 것은 유두 손상, 아기가 수유시 자거나 보채고 빨지 않음, 우울 등이었다. 모유수유율의 감

소 및 모유수유 지속의 실패율 증가는 의료전문인들의 책임과 관련되며, 산전관리에 대한 교육 부족,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 부족, 분만후 모자 분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조, 1992).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수유방법 결정과 실천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aisch, Fox, Whitten, and Pajewski (1989)의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연구에서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수유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신동안의 수유방법에 대한 결정과 실제 모유수유 실천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Manstead, Proffitt, and Smart(1983)는 산모의 모유수유 의도와 수행을 예측하는데 Fishbein과 Ajzen의 이성적 행동 이론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106명의 초산모와 109명의 다산모에게 임신 24주 이후 설문지 조사를 1차 실시하였으며, 분만후 6주에 설문지 조사를 2차 실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관련된 대부분의 행동은 의지에 의한 통제하에 있으므로,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적 의도(intention)를 행동의 주 결정요소로 보았다. 그리고 의도는 태도적 요인과 규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태도적 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규범적 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행동과 의도는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으며($r = .82$), 태도 변수 또한 의도와 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7, .73$). 모유수유 의도(결정)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초산모에서 태도와 규범적 요인이 유의한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었다($R^2 = .598$). 또한 모유수유 행위에 대한 예측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의도와 태도변수가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즉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own, Liberman, Winston and Pleshette(1960) 등은 초산모에서 수유 방법 결정에서의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110명의 임신후기의 임부에서 수유 선택에 따라 비교한 결과 모유수유를 선택한 경우에서 좀더 정서적으로 아기에 대한 양육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정서적인 요인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의 실제적 요인 40%, 신체적인 요인이 17%로 나타나 수유 방법 선택에 정서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모유수유 실천율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박과 황, 1994; 오, 박 및 임, 1994), 미국의 경우 교육이 높을 수록 모유수유의 선택(Cole, 1977) 및 지속기간(Feinstein et al, 1986, Wright & Walker, 198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외에도 아기 특성에 관련하여 볼때,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제왕절개술 분만을 했거나 임원기간중 인공수유를 실시한 경우 모유수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모유수유 지속기간이 짧았다고 보고하고 있어(박과 황, 1994; Tamminen et al, 1983) 출생아의 건강특성과 병원환경이 모유수유 결정 및 지속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전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로 박(1992)은 산전 유방관리교육을 받은 임부에서 모유수유를 계획한 경우 72%에서 모유수유를 실천한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29.8%의 실천율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996년 5월 17일 부터 6월 31일까지 충남 C시에 위치한 D 대학 부속병원에서 분만한 산모 중 연구에 동의한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질문지 조사법이 이용되었으며, 질문지는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6문항, 아기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4문항, 환경적 특성에 관한 8문항, 건강 특성에 관한 5문항과 수유계획에 관련한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및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송등(1993), 정과이(1992), Manstead et al(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와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20문항으로 구성된 모유수유 태도 및 지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10문항과 지식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type 의 5점 등간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Cronbach alpha=.79이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후 퇴원하기 전 연구자가 병실로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산모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의문이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 pc⁺ 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모유수유 결정과 관련한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와 지식의 평균을 산출하고 모유수유 결정 집단과 인공수유 결정 집단간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제 특성

산모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 :

산모의 평균 연령은 25세 이상~29세 미만이 63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60.0%를 차지하였고 전문대졸 이상이 32.6%로 전국표본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에서 나타난 영유아 어머니의 교육수준(고졸이상 : 7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29명(21.5%)으로 1990년 여성 취업률(통계청, 1992) 46.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월수입은 41.5%에서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형태는 85.9%가 핵가족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8명(43.0%)이었으며 33명(24.4%)이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특성에서 남아가 70명(51.9%), 여아는 64명(47.4%)이었으며, 첫아기인 경우가 70명(51.9%)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체중은 2.5kg 미만인 경우가 13명(9.6%)이었으며 3.0~3.5kg가 58명(4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기의 성숙도에서는 정상아가 124명(91.9%)이었으며 조산아가 9명(6.7%)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와 관련한 환경적 특성 :

임신중 육아에 대한 교육은 103명(76.3%)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중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장점)를 얻은 경우는 101명(74.8%)이었으며 정보원으로는 책이 47명(34.5%)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이 44명(32.4%), TV등 대중매체가 33명(24.3%)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와 간호사등 의료인인 경우가 12명(8.8%)으로 의료인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송등(1993)의 연구에서 정보제공원으로 책이 64.7%, 대중매체가 45.5%, 간호사와 의사는 각각 13.3%, 12.5%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산모 67명(49.6%)이 모유수유를 권장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28명(20.7%)에서 시어머니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남편인 경우가 15명(11.1%)을 차지하여 Beske and Garvis(1982)의 연구에서 모유수유 결정에 남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의료인은 단지 2명(1.5%)에서 영향을 주었다고하여 앞으로 좀 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료전문인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임원중 수유형태는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9명(6.7%)이고 모유와 우유를 함께 수유한 경우가 31명(23.0%)으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송등, 1993)에서 7.1%, 21.6%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만후 초기 접촉시기는 분만 3일 이후가 38명(28.1%)이었으며, 분만후 한번도 안아보지 못한 경우가 74명(54.8%)으로 나타났는데 모자동실이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됨을 고려할때(Cole, 1977), 이러한 병원환경이 모아조기접촉 장애를 가져오고 나아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원중 유방맛사지에 대한 교육이나 간호를 받은 경우는 121명(89.6%)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01명(74.5%)은 간호사로 부터 받았다고하여 임원기간동안 유방간호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정등(1993)의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유방간호가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인 항목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임원중 간호사로 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124명(81.9%)에서 있다고 하여 대부분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건강 특성 :

임신중 건강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117명(86.7%)이었으며 임신중독증이 6명(4.4%), 당뇨병이 1명(.7%)

에서 있었으며 그의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등의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11명(8.2%)이었다. 분만시 합병증은 대부분(95.6%) 없었으며, 소수에서 감염(1.5%), 산후출혈(.7%)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상태는 11명(86.7%)에서 정상이었으며 15명(11.1%)이 함몰유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평유두도 3명(2.2%)에서 있었다. 산전 진찰은 118명(87.4%)에서 4회이상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산전 간호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으며 2명(1.5%)은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형태는 자연 분만이 69명(51.1%), 제왕절개술 분만이 48명(35.6%)이었으며, 18명(13.3%)은 유도 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산모 :			
연령	25세 미만	16	11.9
	25세~29세 미만	63	46.7
	30세이상35세미만	46	34.1
	35세이상	10	7.4
학력	국졸	2	1.5
	중졸	8	5.9
	고졸	81	60.0
	전문대졸이상	44	32.6
직업	없음	106	78.5
	있음	29	21.5
종교	기독교	33	24.4
	천주교	13	9.6
	불교	29	21.5
	무	58	43.0
	기타	2	1.4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20.0
	100만원이상-150만	52	38.5
	원미만		
	150만원이상-200만	22	16.3
	원미만		
	200만원이상	31	23.0
	무응답	3	2.2
가족형태	핵가족	116	85.9
	대가족	19	14.1
아기 :			
성별	남	70	51.9
	여	64	47.4
	무응답	1	0.7
출생순위	첫째	70	51.9
	둘째	56	41.5
	셋째	8	5.9
	네째	1	0.7

	구분	실수	백분율(%)
출생시체중	2.5kg미만	13	9.6
	2.5~2.9kg	37	27.4
	3.0~3.5kg	58	43.0
	3.5kg이상	24	17.8
	4.0kg이상	2	1.5
	무응답	1	.7
성숙도	정상아	124	91.9
	조산아	9	6.7
	과숙아	1	0.7
	무응답	1	0.7
환경적특성 :			
육아교육	없음	103	76.3
	있음	32	23.7
	모유정보	없음	2230
	있음	101	74.8
	무응답	4	3.0
모유수유권장	없음	68	50.4
	있음	67	49.6
임원수유형태	모유	9	6.7
	모유+우유	31	23.0
	우유	91	67.4
	무응답	4	3.0
초기접촉시기	분만직후	2	1.5
	분만후 24시간이내	6	4.4
	분만후 24시간-3일	14	10.4
	분만 3일 이후	38	28.1
	안아보지않았다	74	54.8
	무응답	1	.7
유방맞사지	없음	14	10.4
(교육, 간호)	있음	121	89.6
모유수유교육	없음	10	7.4
(임원중)	있음	124	91.9
	무응답	1	.7
건강특성 :			
임신시	질환	없음	85.7
	임신중독증	6	4.4
	당뇨병	1	.7
	기타	11	8.2
분만시 합병증	없음	129	95.6
	산후출혈	1	.7
	감염	2	1.5
	기타	3	2.2
유두상태	정상	117	86.7
	함몰유두	15	11.1
	편평유두	3	2.2
산전 진찰	받지않음	2	1.5
	정기적	118	87.4
	비정기적	15	12.6
분만형태	자연분만	69	51.1
	유도분만	18	13.3
	제왕절개술분만	48	35.6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55(SD = 5.47)와 39.06(SD = 5.15)로 비교적 높은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서 “초유에는 특히 영양분과 면역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4.77), “모유는 아기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준다”(4.68), “모유를 먹이면 아기와의 애착형성에 도움이 된다”(4.63) 순서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태도적 측면에서 “모유를 먹이면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느낀다”(4.70), “엄마 젖을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4.53* 역으로 환산한 점수),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4.47) 순서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모유수유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표 2참조>

이는 송등(1993)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문항 평균 4.10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현재 모유수유율 및 지속기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태도 변수가 성공적 모유수유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과 적절한 중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표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각문항별 점수

문 항	평균(표준편차)
태도적 측면	
모유를 먹이면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느낀다.	4.70(.68)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	4.53(.89)*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	4.47(.97)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아름답다.	4.39(1.02)
모유수유는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다.	4.34(.99)
모유수유는 엄마에게 성취감을 준다.	4.09(1.08)
우유를 먹이는 것이 더 세련되어 보인다.	3.96(1.23)*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3.47(1.39)*
모유대신 우유를 먹는 아이가 가엽게 느껴진다.	2.72(1.36)
젖을 먹이면 유방의 모양이 변한다.	2.36(1.21)*
지식적 측면	
초유에는 특히 영양분과 면역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4.77(.67)
모유는 아기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준다.	4.68(.63)
모유를 먹이면 아기의 애착형성에 도움이 된다.	4.63(.81)
모유는 소화가 잘된다.	4.47(.85)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식이다.	4.46(.83)

문 항	평균(표준편차)
아기에게 젖을 먹인 엄마에게는 유방암이 덜 생긴다.	4.36(.87)
모유는 우유보다 아기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적게 일으킨다.	4.19(1.03)
모유를 먹이면 산후 회복이 빨라진다.	3.96(1.22)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기의 비만예방에 좋다.	3.71(1.21)
모유를 먹이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피임을 가져다준다.	3.33(1.48)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도록 역으로 계산

지식과 태도 사이에 상관은 $r = .54(P < .001)$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모유수유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Gulick(1982)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지속기간이 길었으며, 이전의 연구 결과(변, 한 및 이, 1994; Manstead et al, 1983)태도는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도 및 행위와 높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지식은 모유수유의 시행에 중요변수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정보제공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중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겠다.

모유수유 결정 집단(혼합수유 포함)과 인공수유 결정 집단간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태도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식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 = 2.79, P < .01$). <표 3참조>

<표 3> 모유수유결정 집단과 인공수유결정 집단의 모유수유 태도 및 지식 점수

	모유수유 결정집단	인공수유결정집단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태도	39.49(4.93)	38.08(5.64)	1.27	.207
지식	43.39(4.62)	39.39(7.18)	2.79	.009*

* $P < .01$

3. 모유수유 결정 예측 요인

모유수유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유수유 결정 집단(혼합수유 포함)과 인공수유 결정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임신중 수유 형태, 분만 형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임신관련 질환 및 분만 합병증 유무, 그리고 산모의 교육정도가 수

유 방법 결정과 관련한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표 4참조)

〈표 4〉 모유수유 결정 예측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변수	추정 회귀 계수	표준오차	P
입원동안 수유형태	-4.522	1.361	.001
산모의 교육정도	-4.139	1.971	.036
임신관련질환유무	-.643	.241	.008
분만합병증유무	-.847	.388	.029
분만형태	-1.098	.352	.002
모유수유관련지식	.324	.114	.00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모유수유 선택 여부에 주요 예측 변수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연구(Gulick, 1982 ; Rentschler, 1991)에서 성공적 모유수유와 지식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태도는 예측변인으로 선택되지 않았는데 이전의 연구 결과(Baisch et al, 1989 ; Manstead et al, 1983)에서 태도가 모유수유 결정과 유의하게 상관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입원중 수유형태가 모유수유 선택의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의 연구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 수유 방법과 모유수유 실천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병원에서의 모유수유 교육과 함께 모유수유를 처음 시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모유수유 선택의 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Kearney et al(1990)의 연구에서 분만후 1주 동안의 모유수유에서의 문제를 예측하는데 분만후 병원에서의 인공수유가 주요변인으로 나타나 병원에서의 인공수유는 모유수유 계획 뿐 아니라 모유수유의 지속에 대해서도 저해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모의 교육 정도가 모유수유 선택에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연구(Cole, 1977 ; Feinstein et al, 1986 ; Wright & Walker, 1983)에서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선택 또는 지속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되나, 우리나라의 경우(박과 황, 1994 ; 오동, 199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하된 것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분만 형태가 수유 방법 결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제왕절개술 분만을 한 경우 정상 분만보다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한 이전의 연구(박과 황, 1994 ; Tamminen et al, 1983)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Frantz and Kalmen(1979)은 비록 제왕절개술 분만을 했더라도 성공적인 모유수유 수행을 위해 수술 결정에서부터 간호중재를 통해 아기와 조기접촉, 수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4. 수유 방법 선택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계획한 경우는 50명(37.0%)이고 혼합수유는 58명(43.0%), 인공수유는 27명(20.0%)이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대신 인공수유를 결정하거나 혼합수유를 결정한 경우 주요 이유를 분석했을 때, 혼합수유를 계획한 주요 이유는 모유 부족이 22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직장 문제로 16명(27.6%)이 응답하였다. 그의 혼합수유가 영양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5명(8.6%)에서 있었으며 유두 형태 또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한 경우도 각각 3명(5.2%)이 있었다.

인공수유를 선택한 경우 아기측 문제, 즉 조산아인 경우가 7명(25.9%)이 있었으며, 간염바이러스 보균 등 전염문제 4명(14.8%),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4명(14.8%) 등 엄마측 건강문제가 이유가 되었다. 그의 모유생성 부족이 4명(14.8%)이 있었으며, 직장이나 일이 3명(11.1%)에서 인공수유 선택 이유로 제시되었다. 한편 “모유 먹이기가 힘들 것 같고 자신이 없어서” “가슴이 미워질까봐” 등도 이유로 제시되었다(표 5, 6 참조).

〈표 5〉 혼합수유 선택이유 (총수 : 58명)

	실수	백분율(%)
모유가 부족할 것 같다.	22	37.9
직장 문제로 인해	16	27.6
아기의 영양을 고려하여	5	8.6
유두가 잘 맞지 않아서	3	5.2
편리함 때문에	3	5.2
기타	9	15.5

〈표 6〉 인공수유 선택이유 (총수 : 27명)

	실수	백분율(%)
조산아로 입원중이므로	7	25.9
모유생성 부족	4	14.8
치료 약물 복용으로 인해	4	14.8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	4	14.8
직장(일)	3	11.1
기타	9	33.3

이러한 결과는 비록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 문제 등이 모유수유 결정을 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 제공뿐 아니라 계획적인 산전 관리를 통해 임부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와주며, 구체적인 모유수유 방법 및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조산아인 경우 면역적 측면을 고려할때 모유수유가 더욱 요망되므로 모유수유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의료전문인에게 요청된다고 보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모유수유 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1996년 5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D 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한 산모 13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상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 환경적 지지를 조사하였을 때, 임신중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는 101명 (74.8%)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원으로는 책이 47명(34.5%)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또는 친척이 44명(32.4%), 대중매체가 33명(24.3%)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나 간호사등 의료인으로부터는 12명(8.8%)이 받았다고 하여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를 권장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시어머니 (20.7%), 남편(11.1%) 순으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점수는 평균 42.56 (SD=5.47)과 39.07(SD=5.1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지식정도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와 지식의 상관정도는 $r = .54$ ($P < .001$) 이었다.
모유수유 결정 집단과 인공수유 결정 집단간의 지식 및 태도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식점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 = 2.79, P < .01$).
3. 모유수유 결정에 중요한 예측변수는 입원중 수유 형태, 분만형태,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정도, 임신

관련 질환및 분만합병증 유무, 그리고 산모의 교육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혼합수유를 계획한 주요 이유는 모유 부족이 22명 (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직장 문제로 16명(27.6%)이 응답하였다. 그의 혼합 수유가 영양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5명(8.6%)에서 있었으며 유두 형태 또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한 경우도 각각 3명(5.2%)이 있었다.
인공수유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아기측 문제, 즉 조산아인 경우가 7명(25.9%)이 있었으며, 간염바이러스 보균등 전염문제 4명(14.8%),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4명(14.8%)등 엄마측 건강문제가 이유가 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한다.

1.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수유 방법 결정에 있어 의료인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모유수유 지지를 위한 역할 강화 및 적절한 간호중재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결정에 관련한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모유수유 지속이나 중단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성공적 모유수유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효진(1992).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1993). 모유의 신비. 서울 : 에드텍.
- 박옥희(1992). 임신중 유방간호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 박인화, 황나미(1994). 모유수유실태 분석과 지원 정책의 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1994).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송지호외 10인(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 정문숙외 10인(1993).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정도, 모자간호학회지, 3(2), 187-196.
- 정혜경, 이미라(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141.
- 조미영(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 통계청(1992). 경제활동 인구 연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nutrition (1978). Breast-feeding, Pediatrics, 62(4), 591-601.
- Baisch, M. J., Fox, R. A., Whitten, E., & Pajewski, N. P.(1989). Comparison of breastfeeding attitudes and practices : Low-income adolescents and adult women.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8(1), 61-71.
- Beske, E. J. & Garvis, M. S.(1982). Important factors in breast-feeding success. MCN, Vol. 7 (May / June), 174-179.
- Brown, F., Lieberman, J., Winston, J., & Pleshette, (1960). Studies in choice of infant feeding by primiparas. Psychosomatic Medicine, 22(6), 421-429.
- Chandra, R. K. (1979). Prospective studies of the effect of breast-feeding on incidence of infection and allergy,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 68, 691-694.
- Cole, J. P.(1977). Breastfeeding in the Boston Surburbs in relation to personal-social factors. Clinical Pediatrics, 16(4), 352-356.
- Cunningham, A. S.(1979). Morbidity in breast fed and artificially fed infants. II. The Journal of Pediatrics, 95(5), 685-689.
- Feinstein, J. M., Berkelhamer, J. E., Gruszka, M. E., Wong, C. A., & Carey, A. E. (1986). Factors related to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in an urban population. Pediatrics, 78(2), 210-215.
- Frantz, K. B., & Kalmen, B. A. (1979). Breast-feeding works for Cesareans, too. RN, December, 39-46.
- Gulick, E. E. (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 feeding. MCN, Vol. 7 (Nov / Dec), 370-375.
- Kearney, M. H., Cronenwett, L. R., & Barrett, J. A. (1990). Breast-feeding problems in the first week postpartum. Nursing Research, 39(2), 90-95.
- Macaulay, A. C., Hanusaik, N., & Beauvais, J. E. (1989). Breastfeeding in the Mohawk community of Kahnawake : Revisited and redefined.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0, 177-181.
- Manstead, A.S.R. & Proffitt, C., & Smart, J. L. (198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 Testing a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657-671.
- Marlow, D. R. & Redding, B. A.(1988).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6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346-385.
- Martinez, G. A., & Nalezienski, J. P. (1979). The recent trend in breast-feeding. Pediatrics, 64(5), 686-692.
- Rentschler, D. D.(1991). Correlates of succesful breastfeeding. Image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3(3), 151-154.
- Tamminen, T., Verronen, P., Saarikoski, S., Goransson, A., & Tuomiranta (1983). The influence of perinatal factors on breast feeding.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 72, 9-12.
- William, C. D. & Jellife, D. B.(1972). Mother & child health : Delivering the service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H. J., & Walker, P. C.(1983). Prediction of duration of breast feeding in primipara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7, 89-94.

– Abstract –

Breast Feeding Attitudes and Correlates of Intention of Breast Feeding of Mothers

Shin, Hee Sun · Jeon, Mi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breast feeding and to explore the predictive variables for the intention of breast feeding of mothers.

One hundred and thirty-five mothers who delivered at the D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of May to June in 1996 comprised the sampl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methods before discharge at the hospital.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uring their pregnancy, majority of mothers(74.8%) got the breast feeding information. Information sources were book(34.5%), family and relatives(32.4%), mass media(24.3%), and professionals such as nurses and doctors(8.8%). The frequently reported sources of most encouragement for breast feeding were mother in law (20.7%) and baby's father(11.1%).

2. The mean score of the items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Scale were 42.56 (SD=5.47) and 39.07(SD=5.15), representing positive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score was significant ($r = .54, P < .001$).

Knowledge of breast feed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reast feeding intention group (including partial breast feeding) and artificial feeding intention group($t=2.79, P < .01$)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eeding method in the hospital, delivery type, knowledge toward breast feeding, disease related to pregnancy, complication related to delivery, and educational level of mother were predictives of the intention of breast feeding.

4. The most frequently rated reasons for the plan for mixed feeding were concern about insufficient milk(37.9%) and work(27.6%).

The major reasons for plan for artificial milk feeding were having premature baby(25.9%) and maternal health problems including infection(14.8%) and drug use due to chronic illness(14.8%).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to promote breast-feeding intention and practice. The intervention could be more effective to begin early in pregnancy and include teaching for breast feeding skills as well as information provision for positive attitude formation.

*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 M.S., Clinical Teaching Assistant,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